

■ 경찰이 제시한 38종 금서목록 및 46개 좌경출판사
분류의 실상(1996.11)

- 월간 「말」 지의 보도자료
- 울산양산서점조합에서 보낸 공문
- 경찰이 제시한 좌익매체 42종 목록
- 경찰이 제시한 좌익출판사 46곳
- 인권하루소식 1996년 11월 9일 763호 문민정부의 언론·출판 탄압 실상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
	B13	1

보도자료

원건 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372-4
 전화 322-0011 팩스 322-0019, 322-6816
 pc통신ID 하이텔 promahl 천리안 mahbi 나무누리 mahi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월간 말 편집국
 발신 날짜 1996년 11월 7일
 제목 보도자료

내 용

경찰, 『말』지 등 진보 월간지 탄압 울산에선 서점조합 통해 판매중지와 반품 증용하기도 '창작과비평사' '한길사' '현암사' 등도 판매금지 출판사에 포함

광주와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경찰이 '좌익출판물 유통실태 점검'이란 경찰의 공문을 들고 다니며 『말』, 『길』 등 합법 정기간행물을 비롯 42종의 진보적 성향의 간행물들의 판매 동향을 체크하거나 일부에서는 판매 중지와 반품까지 증용하고 다닌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지역의 일부 서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경 북부 경찰서 보안과 소속의 공유일 계장과 박남준 형사 등 경찰 3명이 청년급방 신국제서적 뿌리글방 등 낱알 서점을 찾아다니며 "『말』지와 『사회평론 길』지를 몇권이나 판았느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 가느냐" 등을 캐묻은 뒤, 『말』지와 『사회평론 길』지 등 42종의 간행물이 기록되어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보낸 '이적 출판물' 목록을 내보이며 온건히 책 판매에 대한 위협을 하고 갔다는 것이다.

경찰이 내보인 좌익출판물 목록에는 이들 두 잡지 외에도 『내일신문』 『주간 노동자신문』 『이론』 등 합법적인 출판물과 『자주의 길』(한정현) 『인권』(KNCC) 『민주노총』 등 사회운동단체의 기관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이 아직까지 광주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들 진보 잡지의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책을 회수해가는 등 두 잡지의 판매를 방해하고 위협한 적은 없으나, 이런 경찰의 움직임은 광주지역 서점들의 『말』지 등 진보 매체 판매를 위축시키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5, 6공 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문민정부 들어서서는 처음"이라며 경찰의 사찰 배경에 의혹을 제기한 한 서점 관계자는 "경찰의 방문 이후 두 잡지를 진열대에서 철수시키고 찾는 손님에게만 꺼내 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민 서점 조사와 관련해 일방적인 정보환동일 뿐이며 전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점 조사를 벌인 당사자인 광주 북부경찰서 보안과의 박남준 형사는 "광주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요주의 서점에 대한 목록이 공문으로 내려온다. 『말』지나 『길』지도 그 목록에 들어있어서 일선 서점을 상대로 일방적인 보안점검을 했을 뿐이며 절대 두 잡지를 이적 표현물로 지적하고 판매를 못하도록 증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 북부경찰서 보안과장인 김성우 경정은 경찰 공문의 내용은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면서 "우리는 서점에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 다만 『말』지를 돈주고 사왔을 뿐이다. 경찰은 말지를 사오면 안되느냐"며 탄압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공문을 내려보낸 당사자인 광주서점 검찰청 보안과 이진환 경사는

*경향신문
 지난해 11월

"10월말 좌익출판물 실태를 점검하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적은 있지
만 『말』이나 『길』같은 합법출판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말』지 등
을 조사할 경우 이적성 판단 여부를 가지고 사회적 논란이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왜 그런 따보질을 하겠느냐"며 "혹시 『말』지 등을 조사할 우리가 있어 그렇지 않
아도 『말』과 『길』은 절대 조사하지 말라고 특기사항으로 공문에 적어서 보내기까
지 했다"며 일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공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경찰의 자의적
인 행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에 대해 북부경찰서에 연락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지역의 사정만 놓고 본다면 검찰이 좌익출판물 유통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
한 적은 있지만 『말』 『길』 등 합법적인 잡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찰
활동을 벌여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똑같은 사건이 더 구체적으로
울산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번 진보매체에 대한 사찰이 과연 경찰만의 자의
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한다.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신재복 서점 주인 안귀봉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울산 중부
경찰서 보안과 소속 형사 2명이 찾아와 김관청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면서 진보매체
42종이 들어있는 '금서목록'과 '대동' '살림터' '창작과비평사' '현암사' 등이 포함되
어 있는 65개 출판사 명단을 보여주면서 "이들 출판사는 좌경이념도서를 출판하는
곳이니 이들이 펴낸 책을 판매중지하고 반포하라"고 종용하다가 서점 주인이 항의
하자 돌아갔다는 것이다.

주인 안씨는 "평사들이 심지어는 소담출판사에서 나온 『이런왕자』와 가림기획에
서 나온 『세계사 100장면』까지 가리키며 이 책들은 이적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날인 5일 울산양산서점조합(대표 서부수)에 찾아가 조합의 이름으로
각 서점에 『판매금지 도서 및 반포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게 했다. 이
에 따라 현재 울산지역의 모든 서점들에는 '금번 관계당국에 확정된 좌경이념 도서
목록을 송부하오니 일체 판매중지하여 주시고 진어 도서는 즉시 반포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울산양산서점조합 이름의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
황이며 이들 서점들은 해당 출판사에 전화로 건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에 대해
문의하는 등 울산지역 서점들이 일대 혼란에 빠져 있다.
한편 울산 중부경찰서 권계환 보안1계장은 "일상적인 보안활동일 뿐이다"라며
자세한 사정은 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서점에 배포
반포조치하라

<별첨자료>

- 1. 울산양산서점조합에서 보낸 공문
- 2. 경찰이 제시한 좌익매체 42종 목록
- 3. 경찰이 제시한 좌익출판사 65곳 명단

22-42 132 1-21쪽 406

482쪽에 안된 울산 권계환이 안지 반포하기

신재복서점 0522-45-0466

안은도 484쪽 찾아서
책들은 가림 양. (출판사별로
검찰에게서 이규태이나
13권)

"앞이론다는 이유"
검자는 한명

P01

94 09:39 KYUNGNAM D05EU

0522 816201

TO:

울산양산서점조합

보령지점 ①

문서번호 : 을서 96 -1041호 전화 211-1056 * 96. 11. 5.

수신 : 전 조합원

제목 : 판매금지 도서및 반출협조요청

1. 을서 96 - 1040호(96.10.31.)와 관련사항입니다.

2. 금번 관계당국에 확장된 작경이념 도서목록을 송부하오니

일체 판매금지하여 주시고 잔여 도서는 즉시 반출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

첨부 : 한글도서목록 6부.

72-6390

울산양산서점조합



0522-68-P200
두리 출판
이용현 내장



22	장주익 김	완성현	계간
23	하나로	홍필현	월간

③

별첨 ②

23 '94 10:25 KYUNGNAM 005EU

0522 816201

WI TO:

F01

대장정	사회주의 학생연맹	부정기
진보 21	학생연합	"
일사의 의침	21세기 진보학생연합	"
대학생	「한총련」 투쟁본부	"
법정이	「한총련」	월간
민주노총	「법정학연」 후원회	부정기
주간 경제 풍향	민주노총	겨주간
주간자보	전국노총협	주간
현장에서 보십시오	전국노련	월간
전해부신들	한노협	겨주간
사회주의 노동자	전해부	부정기
사회주의 평론	극제사회주의자들	월간
노동자 권력의기발	혁사노	겨월간
노동해방의 불꽃	노동해방의 불꽃	부정기
진실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	"
진보정치	진보정치연합	"
노동과 정치	노동정치연대	주간

④

22	자주의 길	합창협	계간
23	하나로	봉불협	월간
24	인문학	KNCC	계간
25	내일신문	내일신문사	주간
26	노동운동	송 회	격월간
27	통치	미 상	부정기
28	민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전진	전국학생연대 추진위	
29	사람과 일터	우티일터 기획	월간
30	주간 노동자 신문	주간 노동자 신문사	주간
31	노동해방의 길	노동해방의길 편집국	격월간
32	대학생 신문	대학생 신문사	주간
33	한국노동청년연대	한국노동청년연대	주간
34	청년노동자	노동청년회	부정기
35	복국성	복부 노동자회	"
36	현장에서 미래를	한국노동이론 정책 연구소	월간
37	경제사회연구	경제사회연구회	격월간
38	교과연구	교과연구소	계간
39	길	사회평론	월간
40	말	월간 말	"
41	학회평론	김진균	계간
42	이론	이론동인	계간

월간 39번 - 이영수 소장

별첨 3

(92.1 - 96.5 간)

연	출판사명	출판도서			작 프 자	소재지
		종류	권수	계		
	대원 (주)	8	1	9	이민현 (35세) * 투표법위반전과자	서울시 은평구
	인민	1	8	9	송영환 (35세) * 투표법위반전과자	서울시 중구
	이웃	8	2	8	정남중 (30세)	서울시 마포구
	민	7		7	한상호 (30세) * 투표법위반전과자	서울시 마포구
	인민서관		8	8	최복자 (52세) * 투표법위반전과자	서울시 마포구
	동	4	2	6	나병식 (45세) * 투표법위반전과자	서울시서대문구
	합	5	1	6	김종수 (39세) * 투표법위반전과자	서울시서대문구
	합	4	2	6	김연인 (34세) * 투표법위반전과자	서울시서대문구
	산학		8	8	소병훈 (41세)	서울시 마포구
	한	2	3	5	박용우 (30세) * 투표법위반전과자	광주시 동구

연구사		4	4	김복순 (68세)	서울시 마포구
한국문화사		4	4	김진수 (38세)	서울시 성동구
가람기획	3		3	이광식 (44세)	서울시 동대문구
발터		3	3	손문경 (34세)	서울시 종로구
구미미디어		3	3	이서영 (36세)	서울시 종로구
내일출판사	2		2	김형욱 (32세)	서울시 마포구
인					
인	2		2	변광우 (29세)	서울시 성동구
조선서광	2		2	김철미 (36세)	서울시 종로구
				· 극보법위반전과자	
수사		2	2	박종화 (54세)	서울시 마포구
복합	2		2	최기홍	서울시 서대문구
서각별	2		2	김형철 (30세)	서울시 종로구
서원		2	2	임성철 (44세)	서울시 종로구
시와사화사	2		2	이종찬 (35세)	서울시 강남구
강출판사		2	2	이순동 (43세)	서울시 종로구
사비평사	2		2	홍증도 (37세)	서울시 종로구
				· 극보법위반전과자	
작과	2		2	김운수 (69세)	서울시 마포구
평사					
학민사		2	2	양해경 (42세)	서울시 마포구
상사	1		2	김석주 (38세)	서울시 종로구
개마고원		1	1	장익덕 (35세)	서울시 마포구

인권이루소식

과목	인원	성별	이름 (나이)	소재지
과학과사상	1	남	이재선 (33세)	서울시서대문구
			* 국보법위반전과자	
한글	1	남	홍윤표 (40세)	서울시서대문구
깊은샘	1	남	박현숙	서울시 종로구
나남	1	남	조상호 (45세)	서울시 서초구
노름차외뵈	1	남	서정규 (30세)	서울시 중구
누무	1	남	김영호 (36세)	서울시 마포구
당대	1	남	김종삼	서울시 마포구
대영문화사	1	남	유영식 (38세)	대구시 중구
독서광	1	남	김년중 (39세)	서울시 성동구
흥흥출판사	1	남	최동진 (35세)	서울시 마포구
			* 국보법위반전과자	
문예출판사	1	남	전병석 (58세)	서울시서대문구
북경	1	남	김경관 (36세)	서울시 중구
린	1	남	김영수 (27세)	광주시 중구
반연	1	남	안영수 (35세)	서울시 마포구
빛남	1	남	이상개 (54세)	부산시 중구
사계절	1	남	김명중 (38세)	서울시 중구
			* 국보법위반전과자	
삼민사	1	남	허철규 (45세)	서울시서대문구
			이태권 (45세)	서울시 성북구

인권하루소식

1996년 11월 09일 (토)
 제 7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문민정부의 언론·출판 탄압 실상

38종 금서목록, 46개 좌경출판사 분류 확인

<내일신문> <말>지 등 문민정부관 금서목록의 일부가 드러났다. 또한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진보적 간행물에 대한 판매금지·반품의 압력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65개 출판사를 좌경 출판사로 분류해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서적에까지 반품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간 <말>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와 울산 지역에서 경찰이 ‘좌익출판물 유통실태 점검’이라는 검찰 공문을 들고 다니며 <말> <길> 등의 합법 정기간행물을 비롯해 42종의 진보적 성향의 간행물들의 판매 동향을 체크하거나 일부에서는 판매금지와 반품까지 종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판매금지·반품 종용

8일 오전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서점에는 형사들이 찾아와 “알아 볼 것이 있다”며 출판사별로 한 권 씩 13권의 책을 압수해 갔다. 서점주인 안 아무개 씨는 “지난 4일에도 형사들이 찾아와 ‘금서목록’을 보여주면서 판매 중단을 종용했다. 또 ‘좌경출판사’ 목록도 제시하며 해당 출판사에서 펴낸 책을 판매하지 말라고 한 뒤 돌아갔다”고 말했다. 안 씨는 “울산 전역의 서점에 ‘금서목록’과 ‘좌경 출판사 목록’이 배포됐으며, 반품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며 “어쩔 수 없이 <말>지 등의 반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지역에서도 10월 말경 광주북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계장과 형사들이 서점을 돌아다니며 “<말>지와 <길>지를 몇 권이나 팔았느냐”고 캐묻은 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보낸 ‘이적출판물’ 목록을 내보였다고 <말>지측은 전했다. 일부 서점에서는 경찰이 직접 월간 사회평론 <길>지를 수거해 가기도 했다.

이미 지난 7월에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지방 대도시마다 경찰이 조사를 핑계로 <말>지 판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7월31일자 참조>.

진보적 간행물 모두 금서

경찰측은 서적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일반서점 뿐 아니라 서점조합을 통해서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울산 시내 서점가엔 ‘판매금지 도서 및 반품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울서 96-

1041호)이 각 서점으로 배포됐는데, 여기에 첨부된 '금서목록'은 울산중부경찰서가 울산양산서점조합을 통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은 판금도서의 목록뿐 아니라 좌경이념도서 출판협의를 가진 출판사의 명단 및 대표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까지 빠짐없이 기재하고 있다.

이 '금서목록'에는 <내일신문> <주간 노동자 신문> 등 합법출판물과 <인권> <민주노총> 등의 사회단체 기관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좌경출판사로 분류된 「창작과 비평사」 「현암사」 「한길사」 등 46개 출판사 명단이 확인됐다.

'금서목록' 공개하라

아직도 다수의 국민들이 공안당국에서만 알고 있는 '이적표현물'을 한두 권 이상 읽었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고 있다. 또한 소설 『태백산맥』과 『전태일평전』 등이 이적표현물 목록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온 국민을 실소케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기밀문서마냥 금서목록의 존재여부와 내용은 철저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왔다. 공안당국이 금서목록의 필요성을 옹변하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그 목록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물어야 할 것이다.

<목록으로>

인권하루소식

1996년 11월 09일 (토)
제 7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금서목록

- 대장정(학생연합, 부정기)
- 진보21(21세기 진보학생연합, 부정기)
- 열사의 외침(한총련 투쟁본부, 부정기)
- 대학생(한총련, 월간)
- 범청이(범청학련 후원회, 부정기)
- 민주노총(민주노총, 격주간)
- 주간 정세 동향(전국노우협, 주간)
- 월간자료(전국노련, 월간)
- 현장에서 보냅니다(한노협, 격주간)
- 전해투신문(전해투, 부정기)
- 사회주의노동자(국제사회주의자들, 월간)
- 사회주의 평론(국제사회주의자들, 격월간)
- 노동자 권력의 깃발(역사노, 부정기)
- 노동해방의 불꽃(노동해방의 불꽃, 부정기)
- 신질서(혁명적 맑스주의자들, 부정기)
- 진보정치(진보정치연합, 부정기)
- 노동과 정치(노동정치연대, 주간)
- 자주의 길(한청협, 계간)
- 하나로(평불협, 월간)
- 인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계간)
- 내일신문(내일신문사, 주간)
- 노동운동(승리, 격월간)
- 동지(미상, 부정기)
- 민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전진(전국학생연대 추진위, 부정기)
- 사람과 일터(우리일터 기획, 월간)
- 주간 노동자 신문(주간노동자신문사, 주간)
- 노동해방의 길(노동해방의 길 편집국, 격월간)
- 대학생 신문(대학생 신문사, 주간)
- 한국노동청년연대(한국노동청년연대, 주간)
- 청년노동자(노동청년회, 부정기)
- 북극성(북부노동자회, 부정기)
- 현장에서 미래를(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월간)
- 경제사회연구(경제사회연구회, 격월간)

교과연구(교과연구소, 계간)
길(사회평론, 월간)
말(월간말, 월간)
학회평론(김진균, 계간)
이론(이론동인, 계간)

좌경이념도서 또는 북한원전을 펴낸 출판사 리스트(대표자, 나이, 국보법 위반 전과자-★)

대동(이민연, ★)/ 살림터(송영현, ★)/ 이웃(김남중)/ 민맥(원용호, ★)/ 일월서각(최옥자, ★)/ 풀빛
(나병식, ★)/ 한울(김종수, ★)/ 힘(김연인, ★)/ 산하(소병훈)/ 한(박용구, ★)/ 연구사(김복순)/ 한국
문화사(김진수)/ 가람기획(이광식)/ 솔터(손문경)/ 신구미디어(이사영)/ 내일을 여는 책(김형욱)/ 두레
(변광무)/ 백산서당(김철민, ★)/ 백수사(박종화)/ 보탬(윤기홍)/ 새벽별(김형철)/ 신서원(임성렬)/ 시
와 사회사(이종찬)/ 여강출판사(이순동)/ 역사비평사(홍종도, ★)/ 창작과 비평사(김윤수)/ 학민사(양
해경)/ 형상사(김석주)/ 개마고원(장의덕)/ 과학과 사상(이재선, ★)/ 글(홍을표)/ 깊은 샘(박현숙)/ 나
남(조상호)/ 노동자의 벗(서정규)/ 녹두(김영호)/ 당대(김종삼)/ 대영문화사(유영식)/ 독서당(김민중)/
홍광출판사(최동건, ★)/ 문예출판사(전병석)/ 물결(김경원)/ 민(김영수)/ 발언(안영수)/ 빛남(이상
개)/ 사계절(김영중, ★)/ 삼민사(허철규)

※ 금서목록과 '좌경'출판사를 적은 자료에는 출판사가 펴낸 출판도서 중에서 '좌경이념도서'와 '북한
원전'을 분류, 권수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나이와 소재지를 게재하고 있으나 이는 생략
했습니다. 또한 팩스수신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일부 생략되거나 잘못 표기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
길 바랍니다<편집자주>.

<목록으로>

■ 경찰이 제시한 38종 금서목록 및 46개 좌경출판사
분류의 실상(1996.11)

- 월간 「말」 지의 보도자료
- 울산양산서점조합에서 보낸 공문
- 경찰이 제시한 좌익매체 42종 목록
- 경찰이 제시한 좌익출판사 46곳
- 인권하루소식 1996년 11월 9일 763호 문민정부의 언론·출판 탄압 실상